

문학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 종로지역을 사례로

A Study on the Database of the Literary Space in Jongno Area

김일림(상명대학교, ilrim9@smu.ac.kr)

문학공간의 공간적 배경은 공간적 표현을 통해서 객관적 사실로서의 지역성은 물론, 개별적인 공간지각에 근거하여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지역성의 파악도 가능하다. 따라서 종로지역은 과거부터 궁중 혹은 양반문화와 각종 상인과 서민들이 거주하여 기층문화가 성립되어 있던 곳이며, 근·현대를 거치면서 많은 문인들의 장소애가 녹아 있는 공간으로, 이들의 문학작품 속에 생생하게 묘사되어진 문학공간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본 연구는 종로지역의 문화콘텐츠 개발의 일환으로서 문학공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database를 구축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학공간은 작품중심의 문학공간, 작가중심의 문학공간, 특정 문학작품이 발표된 후 형성되는 가시적 문학공간이라는 세 측면을 포함한다. 먼저 작품중심 문학공간은 대표적 소설과 시의 배경이 된 공간, 문학작품의 줄거리와 연계된 공간, 주인공의 생활공간, 둘째, 작가중심 문학공간은 작가의 활동무대, 작가의 생가와 거주지 및 이동사와 관련된 공간, 셋째, 가시적 문학공간이란 문인들의 모임장소, 작가와 작품을 활용한 지명, 특정 문학작품을 기리기 위해 설치된 기념비나 문학관이 위치한 장소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조선시대 서울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급격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현대에 이르기까지이며, 공간적 범위는 종로구와 그 인근지역으로서, 문학작품 속에서 종로와 연계된 공간도 포함한다.

연구방법은 문학공간의 자료발굴을 위하여 기존의 문헌자료를 정리, 수집한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문학공간을 작품중심의 문학공간, 작가중심의 문학공간, 가시적 문학공간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그 세부적인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중심의 문학공간은 소설과 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기준은 ① 상명대학교 교수학습센터에 소장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국어, 문학, 도서교과서에 나오는 작가를 선별하여 작품을 선정하였다. ② 서울대 추천도서와 문화관광부 추천도서에서 작가 및 작품선정을 선정하였다. ③ 한국현대문학사(염창섭, 2002, 새문사), 한국근대문학사(서경석, 1999, 태학사)에 포함되어 있는 문학사적 의의가 있는 작가들을 선별한 이후, 책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대표작품을 선정하여 포함시켰다. ④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소월문학상의 수상 작가들과 그들의 주요작품을 포함하여 선정하였다.

* 이 논문은 2005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5-042-B00260)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선정과정은 전체작가의 대표작을 인터넷 또는 책을 통하여 검색하여 종합하였다. 즉, 인터넷 또는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지역과 관련이 없는 작품들을 제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차 선정된 작품은 937작품을 선택하였고, 이를 종로지역과 관련여부에 대한 구분은 2차로 870작품을 통하여 상, 중, 하로 채택하였다. 상의 작품은 종로지역이 주요 무대가 되고 상세하게 표현한 작품, 중의 작품은 문학공간의 배경이 종로지역보다 규모가 크거나 일부분만을 표현한 작품, 하의 작품은 지명만 나온다던지 핵심적인 배경이 되지 못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종로를 문학공간의 대상으로 묘사한 작품은 총 107 작품이며, 이중에 상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30작품을 선정하였다.

종로지역에 시 작품의 선정과정은 인터넷의 시마을(www.feelpoem.com), 포엠토피아(www.poemtopia.co.kr), 시세상이야기(www.sisesang.com), 시의 향기(love2poem.com)에서 종로관련 단어로 검색하여 1차로는 156작품이 선정되었으나, 내용을 판독한 후에 최종적으로 87편을 채택하였다.

둘째, 작가중심의 문학공간은 문학작품과 연관되어 있다. 이는 종로지역을 문학작품(소설과 시)의 배경으로 쓴 작가와 종로지역에서 출생, 활동, 사망한 작가를 기준으로 하였다. 1차선정에서는 135명을 선별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종로 문학공간을 배경으로 소설을 쓴 작가 21명, 시를 쓴 작가 26명, 가시적인 공간에서 시비나 문학관등이 있는 작가 11명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중에 중첩되는 박목월, 조병화, 심훈, 이상, 염상섭, 현진건 6명이 중첩되어 최종적으로 52명의 작가가 선정되었다.

셋째, 가시적인 문학공간은 종로구청의 홈페이지(www.jongno.go.kr) 자료와 서울문학기행(장태동, 2001, 미래 M&B) 및 한국문학지도(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96, 계몽사)에 나타난 종로구에 생가 또는 기념비가 있는 자료를 선정하였다. 그 외 야외답사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

문학공간의 Database 구축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음과 같은 결과표를 얻었다.

첫째, 작품중심의 조사 항목표는 소설과 시로 구분하였다. 소설은 작가명, 작품명, 발행연도, 최초 발표원, 현재 참고도서, 작품의 장르, 시대적 배경, 공간적 배경, 구체적인 공간에 대한 인용구, 작품의 줄거리, 비평 또는 독후감이나 기사, 작품의 주요표현, 표지파일, 관련 사이트, 관련 자료의 사진 자료의 수로 15의 셀을 엑셀 자료로 이용하였고, 부분적으로 100자 이상이 되는 셀은 한글파일을 추가로 혼용하였다. 시는 시인, 작품명, 출처, 인용, 비고 등 소설보다는 단순화시켜서 5셀을 사용하였다.

둘째, 작가중심의 조사 항목 표는 선택된 52명의 작가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는 작가명, 출생장소, 사망 장소, 출생연도, 등단연도, 활동은 세부적으로 (0-10대, 2-30대, 4-50대, 60대 이후) 거주 및 활동지로 구분하였고, 작품명, 중심 동인지, 기타로 총 12셀을 사용하였다.

셋째, 가시적 문학공간은 이름, 장르, 주소 및 명칭, 사진자료로 단순화시켰다.

이상과 같이 문학공간의 체계적 발굴과 DB구축은 종로지역의 문학공간의 연구력 제공 및 연구기반을 확충한다. 문학작품은 역사적 발전과정과 사회적 상황에서 실현된 것으로, 역사와 사회에 대한 질문을 해명하는 통로라는 점에서 문학공간의 발굴과 이의 체계적인 자료구축은 공간변천이 사회적 변화와 상응한다는 사회적 기본원리를 이해시키는 지름길이 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지리학에서 위와 같은 문학공간에 대한 자료구축은 종로지역을 활용사례로 제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유형이 서울전역으로 확대, 조사되어질 필요성이 있으므로 향후가 기대된다.